1. 불능력자

1년 전 공장으로 답사를 갔다가 친구를 폭발 사고로 잃음. 그로 인해 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 여름 땡볕에 있을 때처럼 자제력이 모자라며 자제하기 위해 일부로 심호흡을 자주 한다. 답답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얇게 입고 다닌다.

나이: 고등학생

행동 방향: 짜증을 자주 내고 폭력적인 언어를 자주 쓰지만 츤데레적인 면모도 있고 화를 내도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는다.

2. 전기 능력자

주인공의 친구. 중상위권 성적에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었음. 해킹을 통해 이 도시가 갇혀진 실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표를 잃고 모든 것을 설렁설렁하게 됨. 전기 능력을 얻었지만 휴대용 선풍기를 건전지 없이 돌리는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다님.

나이: 고등학생

행동 방향: 논리적인 말투를 가짐. 목표가 없으니 열정도 없으며 우울한 것처럼 보임. 주인공과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도와줄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가져서 주인공이 말한 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재질문하는 버릇이 있다.

전기 능력을 응용한 해킹이 가능하다.

3. 최종 보스

1년 전 공장으로 답사를 가서 폭발 사고를 겪고 신체에 부상을 입음.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다리를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짐. 지금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 한동안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관리자는 그것을 방관함. 남들의 폭력에 무관심한 이 시스템을 증오하다가 능력이 생긴 뒤에 자기를 괴롭힌 학생들과 관리자를 한명씩 흡수하고(?)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 그들이 가진 모둔 약점을 폭로한다. 그러던 중 관리자의 기억을 통해 도시의 진실을 알게 되고 세상의 인간을 잡아먹을 야망을 세운다.

꾸준히 다니는 병원에서 버퍼의 여동생을 만나 친해지게 되고 주인공과도 알게 된다. 버퍼의 동생을 통해 초능력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들을 제거하기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 관리자들을 통해 초능력자들을 제압할 게획을 세운다.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담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대체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 주인공에게 새나 나비의 모양으로 개체를 만들어 건네주고 텔레파시 능력이라고 속인다. (자코 설정인 아니마와도 연관시킬 수 있을 듯)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이 다르듯이 여러 에너지를 다룰 수 있으며 남들을 흡수시키는 에너지, 육체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등등이 있다. 사람을 완전히 흡수시키기 위해선 일정양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능력자들은 정신의 방벽이 강해서 흡수시키는 것은 어렵다.

능력자들에 다가가 일부로 육체의 힘을 극대화시켜 폭주시킨다

나이: 고등학생(?)

행동 방향: 평소에 텔레파시 능력자로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기 능력을 숨기고 있으며 폭주한 능력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압하라고 종용한다. 주인공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에서 전체주의적인 대사를 하곤 한다. 누구에게나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정리정돈을 하려고 한다.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긴다.